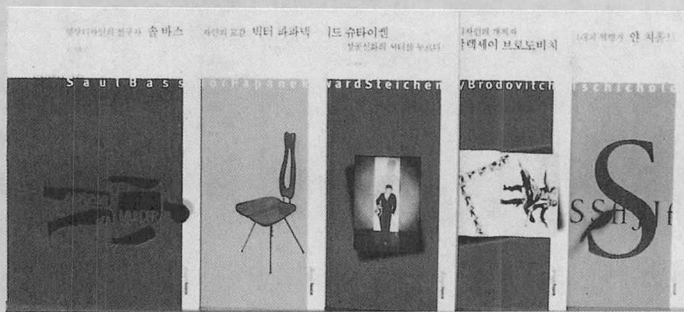


이미지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기술법 개발해야

디자인하우스의 <대화> 시리즈

한기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프랑스의 로저 사르피에(사회과학고등연구원 교수)는 전자텍스트에 의한 변혁으로 '텍스트의 생산·복제기술의 변혁, 텍스트의 매체나 물질성의 변혁, 독서습관의 변혁'을 꼽았다. 이 세가지 특성이 글 문화와 우리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매체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물질성(즉 물성)이다. 인류는 석판, 점토판, 파피루스, 종이의 순서로 문자를 기술(記述)하는 매체를 바꿔왔다. 그런데 이제 종이에 인쇄된 책에서 컴퓨터 액정화면으로 텍스트가 이동하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친숙해 있던 '문서의 질서'를 위협, 인쇄물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읽기'를 추구하고 있다.

이미지의 공세와 새로운 독서법

e-콘텐츠(e-북)와 p-콘텐츠(종이책)라는 두가지 형태의 콘텐츠와, 손으로 직접 쓰거나 인쇄하거나 전자공간에 올리는 세가지 기술법(記述法)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공존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새로운 사고도구(미디어)는 새로운 사고양식을 가져올 것이다. 정보를 소비하는 습관, 편리성, 실용성 등으로 보아 종이책은 앞으로도 계속 읽힐 것이지만 전자공간에서 '새로운 읽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종이책의 읽기 습관마저도 바꾸려 들지 모른다.

생산자가 인터넷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면 단순한 정보제공으로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은 대중들을 향해 엄청난 '이미지 공세'를 퍼부을 것이다. 그렇게 대중의 의식을 '순간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미지는 구태여 '의미 있는 표현'일 필요가 없다. 이미지는 널 포스트만의 말대로 "모든 정보를 짚은 것으

로, 고도로 시각적으로, 들어서 금방 알고, 후백을 확실하게 의문의 여지가 없는 한 그릇에 담으려고"할 것이다.

앞으로 디지털 공간에는 영화와 텔레비전을 능가하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영상과 말과 음악을 아우르는 콘텐츠들이 무수히 등장할 것이고, 그 결과 대중들은 다양한 유형과 형태로 사고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험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대중은 지금까지의 책읽기 습관만으로는 정보를 제대로 '읽을'(수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독서법에 익숙해지는 독자들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형태의 기술법으로 책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디자인하우스가 새롭게 펴내기 시작한 <대화> 시리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20세기를 빛낸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의 가상대화를 통해 디자인을 이해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이 시리즈는 현재까지 《영상디자인의 선구자 솔바스》(박효신), 《인간과 디자인의 교감 빅터 파파넵》(조영식), 《신 타이포그래피 혁명가 안치홀트》(김현미), 《에드워드 슈타이켄 성공신화의 서터를 누르다》(최봉립), 《새로운 편집디자인의 개척자 알렉세이 브로도비치》(이정선) 등 5권이 나왔다.

이 시리즈는 최초의 디자이너 작가론이라는 점, 그래픽·제품·인테리어·타이포그래피·영상 등 디자인의 전 분야를 다룬다는 점, 충천연색 도판을 풍부하게 수록해 작품집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점, 지니고 다니기 편안한 판형과 부담 없는 가격(7000원), 진지하고 본격적인 작가론의 수록, 참고문헌과 도판 목록, 연표 등에

충실을 기해 전문적인 연구자·전공자·학생들에게 든실한 가이드 역할을 하는 점 등 여러모로 탁월한 기획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디자인은 무엇인가? 책 만들기에서도 '저자'(author)로서 디자이너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다. 콘텐츠를 발전시키는 의미로서 기본언어(basic language)인 디자인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출간된 타이밍 또한 적절했다.

가상대화 형식의 텍스트 구성

그러나 무엇보다 이 시리즈에서 주목되는 것은 쉽고 재미있는 가상대화 형식의 텍스트다. 국내 소장파 이론가들로 구성된 필진들이 가상대화의 형식을 빌려 이미 고인이 된 디자이너들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은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들도 그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친숙함을 느끼게 만든다. 더구나 필진들은 우리 디자인 현실에 맞춰 디자인의 거장들과 가상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실질적이고 공감이가는 내용이 됐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거장 디자이너들의 삶과 철학, 나아가 이들이 20세기 디자인의 역사와 21세기의 디자인에 끼친 영향을 짚어볼 수 있다.

이런 가상대화 형식의 텍스트, 강의하는 방식과 같은 구어체적 텍스트, 풍부한 사례가 제시된 텍스트 등은 새로운 독서습관 혁명을 경험하고 있는 독자들을 종이책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